

四象體質과 衣服價値觀의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가정과

박 윤 정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정 옥 임

目 次

I.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용어정의
4.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사상체질
2. 의복가치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도구 작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IV. 연구결과

1. 성인여성의 사상체질
2.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
3. 성인여성의 사상체질과 의복
가치관의 관계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문제제기

체질 이론은 東. 西洋을 막론하고 그 淵源이 오래되었으나, 한방의학에서는 東武 李濟馬의 四象體質 이론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의학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을 획일적으로 간주하고, 더욱이 질병도 획일적으로 생각하여 사람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마는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

을 체질에 따라,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별됨을 밝히고, 체질별로 生理, 病理, 및 치료 약리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체질의 학이 성립하게 되었다.¹⁾

四象體質 감별에는 외모, 심성, 병증등 세가지가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 체질 감별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주관적 감별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정확한 체질 감별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체질감별만 선행된다면, 체질에 따라 특수한 개인차^{2)·3)}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성격, 심리상태, 가치

1) 송일병 :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 하나미디어, 1993, p.33

2) 李濟馬 : 「동의수세보원」, 서울 : 행림서원, 1963.

3) 조용태, 송일병 : 「입원환자 53例의 체질변증을 위한 설문 통계분석」, 「사상의학회지」, 제3권, 제1호 : 105, 1991에서 재인용.

관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심성적인 측면에서 체질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또는 가치관의 일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가치관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가치관은 인생의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행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⁴⁾ 의복 행위를 인간행동의 한 영역으로 간주할 때 가치관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제 몸에 두르는 의복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취향과 기호를 가지고 있다.⁵⁾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람들의 의복행동의 저변에는 개인적인 이유와 중시하는 의복가치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⁶⁾

Ryan⁷⁾은 의복이 개인의 성, 연령,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성격특성, 가치관, 감정까지도 전달해주는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James는 “의복은 즉, 자기자신이다.”라고 하여 의복과 자신을 동일시 하였으며,⁸⁾ Horn⁹⁾은 개인의 의복은 개인의 가치관, 자아개념, 사회적 지위 및 성격등의 그 사람에 관한 복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Sign Language」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은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상징해주는 개인적 요소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사회심리적 측면의 의복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심성적 측면의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상체질에서 심성적 측면을 위주로 한 체질분류를 하여 이것이 개인의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류산업에서도 사상체질 이론을 적용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시장 기회에 촉에 소비자가 지향하는 타입을 파악할 수 있어 상품의 생산 판매 전략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성인여성의 사상체질을 분류한다.
2.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을 파악한다.
3. 성인여성의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四象體質

1894년 東武 李濟馬가 그의 저서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인간은 천부적으로 받은 臟腑 虛實 이 있고, 이에 따른 喜·怒·哀·樂의 성정이 작용하여 生理 현상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생리, 병리 및 자유방법에 있어서도 四象의 개념에 의거하여 체질별로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여 形을 制定 함으로써 예방의학적인 견지에서 심화하려는 학문이 四象醫學이며, 四象體質은 기질적 특성과 病形, 치료법등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인간을 비슷한 유형끼리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2) 심성적 측면의 四象體質

4) E. Goffman :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 Double day, 1959, p.8.

5) 정명선 : "대학생의 의복가치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81, p.2.

6) 정명선 : 전제논문.

7) M.S.Ryan :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 Rinehart and Winston, 1966, pp.14~24.

8) 이인자 :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수학사, 1985, p.11에서 재인용

9) M.J.Horn :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6.

東武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心性”을 기본으로 한다. 체질에 따라 심성도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性質才幹(재능, 소질, 장점), 恒心(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心慾(심성을 다스리지 못해 너무 과도한 때 드러나는 욕심)등으로 구분된다.

심성적 측면의 사상체질은 일처리와 장점, 대인관계, 평소의 마음, 감정, 행동, 적성등 여러가지 사회활동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3) 의복가치관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과 관련된 태도, 행동을 유발하는 관심, 목표, 동기를 의미하며 6개의 변인으로 구성된다.

① 심미적 가치관

조화된 디자인과 좋은 질감, 색상의 의복을 선호하며 의복의 미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가치관

착용시 편안하고 손질, 보관이 용이한 의복을 선호하며 최저의 가격으로 의복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을 말한다.

③ 사회적 가치관

개성있는 의복착용보다는 동조와 유사한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치적 가치관

최고품이나 독특한 의복으로써 타인보다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길 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종교적 가치관

도덕,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의복을 착용하며 화려한 의복보다는 검소하고 정숙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론적 가치관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의복의 적합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1. 조사대상은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에만 한정한다.

2. 사상의학을 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상체질 감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1993년 사상의학회지에 게재된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설문지를 이용하여 심성적 측면의 체질 분류를 하였다.

3. 의복가치관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상체질

사상의학은 병증을 치유함에 있어서 약물만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체질의 장단점에 따른 性情의 조절과 음식 선택을 약물 복용과 함께 함으로서 외형의 육체와 정신이 조화하게 되면 病症이 치유된다는 획기적인 학설이다.¹⁰⁾

오늘날에는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사상의학의 기본 이론과 임상적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¹⁾

즉 사상체질의 감별에는 외모 심성, 병증등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들 四象體質의 특징을 보면 외모로본 四象人은 신체의 발달 부위 차이로 외모에서도 체질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심성으로 보는 四象人은 심신을 일체로 보는 心身의학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체질에 따라 체형이 달라진 만큼이나 그 심성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홍정용, 이을호¹²⁾는 이제마의 사상설은 한 인간의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뿐 아니라 심성적 정의 및 정신적 욕구로써의 喜怒哀樂을 함께 다루

10) 김선호외 : “사상체질 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제1호 : 93, p.67.

11) 박성식외 :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 사상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제7호, 1993. p.7

12) 홍정용, 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서울 : 행림서원, 1989.

심성을 내포한 醫學이라고 하였고, 한주석등¹³⁾은 동의수세보원과 濟家新編의 養生長壽論에 대한 연구에서 인체의 병증을 논함에 있어 항상 심성의 편차를 중시하고 정신적 측면의 조리를 언급했는데 이 심성을 사상의학에서는 性質才幹, 恒心, 心慾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체내 생리현상의 이상으로 진단하는 병증으로본 四象人이 있다.

결국 사상체질 감별의 중요한 점을 대체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¹⁴⁾

그동안 체질 감별에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질 감별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석삼¹⁵⁾의 四象頭部觸診法, 이병신¹⁶⁾의 乳房 및 腸骨尺度法이라는 제1법과 太極鍼法이라는 제2법이 있다.

한희석¹⁷⁾은 顏模型皮膚 및 食性を 기준으로 한 감별법을 제시했고 권영식¹⁸⁾은 乳臍尺度法, 박인상¹⁹⁾은 十種鑑別法을, 허만희²⁰⁾는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명복의 완력테스트, 오무라 오시아기의 오링

테스트 방법이 있다.

2. 의복가치관

가치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가치관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선택이 가능한 다수의 관심대상 중에서 어느 특정한 것에 기호를 표하는 태도 및 관념의 가치관이다. 즉 가치관은 인간의 의사 결정과 행동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원리이다.

의복가치관이란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에 있어서 어떤 점에 더 값어치를 두고 있는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은 대략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 가치관 및 의복에 대한 흥미나 태도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²¹⁾ Allport-Vernon의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Ryan,²²⁾ Hoffman,²³⁾ Richard와 Hawthorne²⁴⁾ 등 많은 사람이 있고, 국내 연구로는 김광경²⁵⁾을 비롯 정삼호,²⁶⁾ 신귀희,²⁷⁾ 정혜영,²⁸⁾ 김윤희²⁹⁾ 등 많은 사람을 들 수 있다.

13) 한주석외 2인 : “동의수세보원과 濟家新編의 養生長壽論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제3권, 제1호 : 1991. p.148.

14) 김선호외 2인 : “사상체질 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제1호 : 1993. p.67.

15) 박석삼 : 『四象頭部觸診法』, 서울 : 의림사, 1982. pp.62~64.

16) 이병신 : 『鍼道遠流重磨』, 서울, 행림서원, 1974. pp.347~348.

17) 한희석 : 『火曜漢方』, 창간호 : 1972, pp.24~28.

18) 권영식 : 『四家方藥合論』, 서울 : 행림서원, 1973. pp.37~42.

19) 박인상 : 『東醫四家要訣』, 서울 : 행림서원, 1974. pp.3~6.

20) 허만희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1.

21) 임숙자 :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p.14.

22) M.S.Ryan : 전계논문, p.37. 백선영 : “남녀교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15에서 재인용.

23) A.M.Hoffman : Clothing Behavioral Factors for a Specific Group of Women Related to Aesthetic Sensitivity and Certain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Background Factors”,

24) E.A.Ricahrd & R. E Hawthorne : “Values, Body Cathes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3. 1971. pp.190~194.

25) 김광경 :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 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73. pp.38~40.

26) 정삼호 : “제주도 여대생의 의복 행동과 가치관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1978. pp.26~267.

27) 신귀희 : “가치관과 의상 흥미간의 상관 관계 연구”, 건국대석사논문, 1980.

28) 정혜영 : “성인여성의 가치관과 의복 행동과의 관계 연구”, 경상대학 석사논문, 1985.

29) 김윤희 : “여대생의 의복가치관과 유형 몰입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연령	20~29세	249	47.98
	30~39세	173	33.33
	40세 이상	97	18.69
학력	중졸이하	20	3.85
	고졸	184	35.46
	대재학	196	37.76
	대졸이상	119	2.93
결혼여부	미혼	215	41.43
	기혼	304	58.57
가정의 총월수입	500만원 미만	18	3.47
	50~100만원	92	17.73
	100~150만원	166	31.98
	150~200만원	118	22.74
	200만원이상	125	24.08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 (47.98%)로 가장 많고, 30~39세 (33.33%), 40세이상(18.69%)순이었

<표 2> 사상체질 분류 문항

체 질	해 당 문항수	문 항 내 용	문항적격도와 채점방향
태양인	16	무슨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5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49
		친구 사귄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4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22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50
		무슨 일이든지 플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48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28 아니오
		항상 성급한 편이다.	20

다. 학력은 대재학(37.76%), 고졸(35.46%), 대졸 이상(22.93%), 중졸이하(3.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총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166명(31.98%)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3.47%)로 가장 적었다.

2. 조사도구 작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조사, 사상체질 분류 조사, 의복가치관 조사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상체질 분류

사상체질 분류를 위한 조사도구는 1993년 「사상 의학회지」에 게재된 “사상체질 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발표된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계분석에 의한 예비연구를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 형식의 조사도구이다. QSCC 검사 문항은 四象體質을 분류하기 위한 105개의 문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心性的 측면에 대한 문항 적격도가 높은 50개 문항을 뽑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과 채점방향은 (표 2)와 같다.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친구는 많지만 막상 속을 터놓을 사람은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람을 꺼린다.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43 27 59 46 35 40 28 29
태음인	10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진득하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움직이기 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점잖은 척 할때가 많다.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있다.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21 아니오 31 53 50 45 21 19 19 58 24 아니오
소음인	17	단정하며 꼼꼼하다.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친구 사귄다 이거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 친구를 사귄다 이거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사람을 볼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한 곳에 있으려고만 하고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안절부절 못 할때가 많다.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기는 인색한 편이다.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말로는 서로 툭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툭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24 32 39 48 34 30 34 51 38 31 41 42 34 35 32 아니오

(2) 의복가치관 조사

의복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는 A.M. Creekmore의 "Measure of Eight Cloth Values" 의 - 심미성, 경제성, 탐험성, 정치성, 종교성, 감각성, 사회성 - 8가지 가치 영역 중에서 탐험성,

감각성 가치관을 제외한 6가지 가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문항은 Creekmore와 김숙희,³⁰⁾ 정명선,³¹⁾ 정숙정,³²⁾ 이연재의 논문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한 후, 각 문항과

30) 김숙희: "대학생의 의복가치관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석사논문, 1992.

31) 정명선: "대학생의 의복가치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1.

32) 정명선: "남녀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정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33) 정숙정: "가정 환경 변인과 개인의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전체 문항 합계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내적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총 40개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의복가치관의 채점은 각 가치관별로 문항마다 Likert-type 형태의 3점 척도법을 이용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각 가치관별 문항의 점수 합계로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994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0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4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부하여 560부를 회수하였지만 성실치 못한 응답자료를 제외한 519부를 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유효회수율 65%)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선대학교 전산연구소에서 SAS를 이용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성인 여성의 사상체질을 분류하는데는 群集分析(Clustering Analysis)을 하였다.
2. 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에는 상관 분석을 하였다.
3. 성인 여성의 사상 체질과 의복 가치관과의 관계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인 여성의 사상체질

四象醫學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에서 東武

李濟馬는 한고을에 인구가 만명일 경우 태음인이 5천명, 소양인 3천명, 소음인이 2천명이고 태양인은 1~2명 혹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의 “사상체질분류 검사(QCSS)의 타당화 연구”등의 선행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태양인의 수는 전체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체질 분류도 힘든 점을 고려하여 태양인 척도를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四象體質의 類型을 결정하기 위해 군집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사상체질 분류가 결정된 군집의 명칭과 해당되는 표본의 수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사상체질 유형 군집의 명칭에 대응하는 표본의 수

군집번호	사상체질유형	N	%
1	소양인 유형	160	30.8
2	태음인 유형	211	40.7
3	소음인 유형	148	28.5
		519	100

太陰人の 유형에 해당되는 표본의 수는 211(40.7%)로 가장 많았고 少陽人 유형(30.8%), 少陰人 유형(28.5%)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여자를 대상으로 통계분석 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체질분류가 되겠지만, 東醫壽世保元과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성인여성의 의복 가치관

(1) 성인여성의 경우 일반적 특성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과 의복가치관과의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표 4) 같다.

〈표 4〉 일반적 특성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일반적특성	의복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연령	20~29세	0.223	0.471	0.673	0.334	0.515	0.442
	30~39세	0.205	0.523	0.691	0.282	0.642	0.675
	40세이상	0.146	0.651	0.747	0.211	0.721	0.743
학력	중졸이하	0.122	0.184	0.204	0.253	0.236	0.153
	고졸	0.305	0.427	0.326	0.275	0.283	0.286
	대재학	0.467	0.482	0.253	0.435	0.325	0.365
	대졸이상	0.373	0.321	0.472	0.464	0.282	0.348
결혼 여부	미혼	0.231	0.174	0.383	0.410	0.183	0.239
	기혼	0.291	0.373	0.192	0.285	0.382	0.285
가정의 총 월수입	100만원미만	0.111	0.433	0.273	0.177	0.243	0.214
	100~150만원	0.125	0.384	0.171	0.325	0.293	0.284
	150~200만원	0.181	0.345	0.463	0.314	0.304	0.410
	200만원이상	0.258	0.288	0.435	0.424	0.384	0.290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론적 가치관은 높아졌으나, 심미적, 정치적, 가치관은 4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많은 성인 여성일수록 의복의 미적 표현과 과시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것은 김경희(1983)의 연구 결과³⁴⁾와는 상반되고, 심미적 가치관이 더 중요시 된 것은 김정호(197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대생 집단이 심미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짧은층이 외적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여대생 집단은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반면 경제적, 종교적, 이론적 가치관도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절약적이고 도덕적인 의복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심미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미적 표현 중시, 의복을 통한 신분과 시나 유행추구, 도덕성 지

향을 뜻하며,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주부들이 유행에 관한 흥미가 높다는 김경희(198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3. 성인여성의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1) 성인여성의 사상체질 유형에 따른 의복가치관의 차이

성인 여성의 사상체질 유형에 따른 의복가치관의 차이는 다음과(표 5)와 같다. 사상체질 유형에 따른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가치관별로 다중비교를 하였다. 정치적 가치관($P<.01$), 종교적 가치관($P<.05$)은 체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가치관은 체질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치적 가치관에서는 각 체질 유형별로 서로 차이가 있고, 종교적 가치관은 소양인과 소음인 유형에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34) 김경희 외 :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 행동과의 관계”, 의류학회지 제7권, 제2호, 1983.

<표 5> 성인 여성의 사상체질 유형에 따른 의복 가치관의 차이

사상체질유형	소 양 인			태 음 인			소 음 인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F값	Pr>F
심미적가치관	160	14.82	2.79	211	14.67	2.65	148	14.79	2.72	0.15	0.865
경제적가치관		17.14	3.30		17.17	2.78		17.30	3.12	0.11	0.894
사회적가치관		12.85	2.65		12.94	2.54		13.35	2.41	1.68	0.188
정치적가치관		11.40	2.53		10.51	2.41		11.43	2.48	7.41	0.007**
종교적가치관		13.76	2.71		14.42	2.66		14.56	2.59	4.0	0.019*
이론적가치관		14.89	2.27		14.72	2.48		14.78	2.49	0.21	0.808

*P<.05 **P<.01

<표 6> 소양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의 상관관계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1.000	-0.240*	0.064	0.443**	-0.309**	-0.238*
경제적 가치관		1.000	0.022	-0.250*	0.277**	0.307**
사회적 가치관			1.000	0.220*	0.230*	0.023
정치적 가치관				1.000	-0.088	-0.064
종교적 가치관					1.000	0.202
이론적 가치관						1.000

*P<.01 **P<.001

(2) 성인여성의 사상체질 유형과 의복가치관 변인 상호간의 관계

1) 소양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간의 관계

(표 6)에서 내적 상관 관계를 보면 심미적 가치관과 정치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과 이론적 가치관이 상당히 상관이 있게 나타났고 심미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에서는 부적 내적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나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2) 태음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간의 관계

태음인 유형에서는 소양인 유형에서와 같이 심미적 가치관이 정치적 가치관에 중정도의 상관을 나타냈고, 이론적 가치관과는 다소 높은 부적 상

관을 보이고 있다.(표 7)

3) 소음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간의 관계 (표 8)

소음인 유형에서는 심미적 가치관이 정치적 가치에 대해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종교적 가치관과 이론적 가치관은 중정도의 (P<.001) 상관을, 그리고 정치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은 다른 변인에 비해 다소 높은 부적 상관(P<.001)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 3가지 체질 유형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것은 심미적 가치관과 정치적 가치관으로 이는 임춘봉(1974),³⁵⁾ 이금실(1979),³⁶⁾ 이명희(1983),³⁷⁾ 변기혜(1983),³⁸⁾ 정숙

35) 임춘봉 :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 흥미와의 상관 관계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74.

36) 이금실 : "의복의 신분 상징성과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 연구", 연대 석사 논문, 1978.

37) 이명희 :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3.

38) 변기혜 :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의복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정(1984)³⁹⁾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체질 유형 모두 의복의 미적 표현을 중시하여 타인의 주목을 끌려는 심성적 측면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관도 3가지 체질 유형 모두에서 종교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최혜선(1981), 변기혜(198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의복으로써 동조하려는 집단은 보수적이고 윤리적인 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양인 유형에서만 사회적 가치관은 정치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소양인 유형이 아는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 심성적 특성이 의복으로써 타인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소음인 유형에서만 정치적 가치관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최혜선(1981), 변기혜(1983), 정숙정(198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7> 태음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의 상관관계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1.000	-0.266*	-0.0166	0.456**	-0.159**	-0.310*
경제적 가치관		1.000	0.180*	-0.134	0.173**	0.288**
사회적 가치관			1.000	0.126	0.249**	0.061
정치적 가치관				1.000	-0.080	-0.080
종교적 가치관					1.000	0.143
이론적 가치관						1.000

*P<.01 **P<.001

<표 8> 소음인 유형에서 의복가치관 변인의 상관관계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1.000	-0.228*	-0.145	0.381**	-0.238*	-0.188
경제적 가치관		1.000	0.278**	-0.259	0.263*	0.302**
사회적 가치관			1.000	-0.090	0.308**	0.208
정치적 가치관				1.000	-0.352**	-0.228*
종교적 가치관					1.000	0.452**
이론적 가치관						1.000

(3) 성인여성의 사상체질내에서의 의복 가치관에 관한 요인 분석

1) 요인분석

본 연구는 유형화하여 분류된 사상체질내에서 6가지의 의복가치관 변수들 사이에 내재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만을 고려하면, 소양인 유형과 태음인 유형에서는 2개의 요인이, 소

음인 유형에서는 3개의 요인에 의해 의복가치관 변수들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10, 11)

2)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공통분산

의복 가치관 변수들의 분산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다음과(표 12)과 같다.

소양인 유형에서는 요인 1(2.1009)과 요인 2(1.3050)에 의해서 사회적가치관(0.780889)과 정치

39) 정숙정 : "가정환경 변인과 개인의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적 가치관(0.6745668)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되었다.
 나타났고, 이론적 가치관(0.295966)이 낮게 설명

<표 9> 소양인 유형

	1	2	3	4	5	6
Eigenvalue	2.1009	1.3050	0.8857	0.7070	0.5812	0.4203
Difference	0.7960	0.4193	0.1786	0.1259	0/1612	0.1523
Proportion	0.3502	0.2175	0.1476	0.1179	0.0969	0.0700
Cumulative	0.3502	0.5677	0.7153	0.8331	0.9300	1.000

<표 10> 태음인 유형

	1	2	3	4	5	6
Eigenvalue	2.0420	1.1978	0.7856	0.7356	0.6927	0.5463
Difference	0.8422	0.4122	0.0500	0.0429	0.1464	0.1492
Proportion	0.3403	0.1996	0.1309	0.1226	0.1154	0.0911
Cumulative	0.3403	0.5421	0.6709	0.7935	0.9089	1.0000

<표 11> 소음인 유형

	1	2	3	4	5	6
Eigenvalue	1.7982	1.2778	1.0290	0.7377	0.6379	0.5191
Difference	0.5204	0.2488	0.2913	0.0988	0.1184	0.1784
Proportion	10.2997	0.2130	0.1715	0.1229	0.1063	0.0866
Cumulative	0.2997	0.5127	0.6842	0.8071	0.9134	1.0000

<표 12>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공통분산(communality)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전체	0.612284	0.439734	0.637569	0.673049	0.482056	0.378229
소양인 유형	0.638231	0.463143	0.780889	0.674568	0.553131	0.295966
태음인 유형	0.589672	0.458549	0.649498	0.653879	0.460516	0.427678
소음인 유형	0.720383	0.640220	0.688807	0.747218	0.590282	0.718018

태음인 유형에서는 요인 1(2.0420)과 요인 2(1.1978)에 의해서 정치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0.427678)의 분산이 가장 낮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인 유형에서는 요인 1(1.7982), 요인 2(1.2778) 그리고 요인 3(1.0290)에 의해서 정치적 가치관(0.747218), 심미적 가치관(0.720383)의 분산이 가장 높게 설명되었으며, 종교적 가치관(0.59

0282)의 분산이 낮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사상체질 유형에서의 회전된 요인 적재량
 각각의 사상체질 유형에서의 베리맥스(Vari-
 max) 방법에 의해 회전된 요인 적재량은(표 13)
 와 같으며, 각각의 사상체질 유형 내에서 6가지 의
 복가치관 변수들에 내재하는 구조를 발견하였는
 데, 도출된 요인의 명칭을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정하였다.(표 14)

<표 13> 사상체질 유형에서의 회전된 요인 적재량

심미적 가치관	0.80*	0.04	-0.17	0.75*	0.80*	-0.14	-0.23
경제적 가치관	-0.56*	0.38	0.60*	-0.31	-0.17	0.77*	0.12
사회적 가치관	0.21	0.86*	0.73*	0.34	0.06	-0.03	0.83*
정치적 가치관	0.80*	0.20	0.08	0.80*	0.85*	0.03	0.14
종교적 가치관	0.37	0.64*	0.66*	-0.16	-0.12	0.22	0.72*
이론적 가치관	-0.47*	0.28	0.58	-0.31	0.06	0.84*	0.04

* : 요인적재량
10.41보다 큰 것을 나타낸다.

<표 14> 요인의 명칭

사상체질 유형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소양인 유형	美과대 과시형	도덕지향형	
태음인 유형	입플 도덕지향형	美 과시형	
소음인 유형	美과시형	절약추구형	도덕지향형

(4) 성인여성의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성인여성의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

소양인 유형 집단은 각각의 가치관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였는데, 사회적 가치관(0.57163)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태음인 유형 집단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였고, 사회적 가치관(0.59072)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심미적 가치관(0.25466)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음인 유형 집단은 정치적 가치관(P>.01)만이 상관관계가 없었고, 이론적 가치관(0.578920), 사

회적 가치관(0.57161), 경제적 가치관(0.56956), 종교적 가치관(0.54026)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의 3가지 유형 집단 모두와 6가지 가치관 중에서 의외의 반응으로 심미적 가치관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실용성 보다 심미성에 가치를 두고 이러한 의복을 더 사용하려고 하였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Lapitsky (1961),⁴⁰⁾ 도규희(1982),⁴¹⁾ 정혜영(1985),²⁸⁾ 김윤희(1989)²⁹⁾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리고 소음인유형 집단만 정치적 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6> 사상체질과 의복가치관과의 상관관계

	심미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이론적 가치관
소양인 유형	0.26304**	0.48305**	0.57163**	0.49812**	0.42506**	
태음인 유형	0.25466**	0.48774**	0.59072**	0.44812**	0.50562**	0.40070**
소음인 유형	0.21908**	0.56956**	0.57161**	0.14553	0.54026**	0.57920**

*P<.01 **P<.001

40) Lapitsky : Clothing value and their Relation to Journal and to Social Insecu-lity and Doctor Dressertation

41) 도규희 : "대구시내 여대생의 의복가치관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2.

V. 결론 및 제언

사상 체질과 의복 가치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대부터 40대 사이의 광주에 거주하는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광주지역 성인여성은 四象體質類型에서 太陰人類型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7%)
2. 일반적 특성과 의복 가치관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심미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이 높고, 그외의 가치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 정치적 가치관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관은 고졸 응답자들이 사회적 가치관은 대졸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외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4. 四象體質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소양인 유형 집단과 태음인 유형 집단, 소음인 유형 집단은 모두 사회적 가치관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가치관은 소음인 집단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미적 가치관은 3가지 체질 유형 집단 모두에서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때 소양인 유형, 태음인 유형, 소음인 유형 모두 사회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개성적인 의복보다도 동조성을 띤 의복을 착용하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음인 유형 여성이 특히 이론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정하고 치밀하며 꼼꼼한 소음인 유형의 심성적 특성이 의복 가치관에서도 나타나 의복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3가지 체질 유형 모두가 심미적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반응이라 생각된다.

특히, 소음인 유형의 여성만 정치적 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소심한 성격으로 사람사귀

는 것이 어려우며 매사에 몸을 사리는 소음인의 심성적 특성이 의복 행동으로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본 연구는 소음인 유형이 정치적 가치관을 제외한 의복 가치관과는 관계가 있어 四象體質로 의복 가치관은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체질감별이 선행되어 의류산업에서 소비자의 체질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의복에 대한 기호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연구대상도 남성을 포함하여 폭넓은 연령층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김광경 :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 관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3.
- 2) 김경희, 임숙자 :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의류학회지」, 제7권, 제2호 : 1983.
- 3)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제1호 : 1993. p.67.
- 4) 김선호 : 전거서
- 5) 김숙희 : "대학생의 의복가치관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1992.
- 6) 김윤희 : "여대생의 의복가치관과 유행몰입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9.
- 7) 권영식 : 「四象方藥合論」, 서울 : 행림서원, 1973. pp.37~42.
- 8) 도규희 : "대구시내 여대생의 의복가치관과 육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2

- 9) 박석삼 : 「東醫四象大展」, 서울 : 행림서원, 1977. pp.617~624.
「[四象頭部觸診法」, 서울 : 의림사, 1982. pp. 62~64.
- 10) 박성식, 송일병 :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 사상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제1호 : 7, 1993.
- 11) 박인상 : 「동의사상요결」, 서울 : 행림서원, 1974. pp.3~6.
- 12) 변기혜 :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2.
- 13) 송일병 : 「알기쉬운 四象醫學」, 서울 : 하나미디어, 1993. p.33.
- 14) 송일병외 : “입원환자 53例의 체질 변증을 위한 설문통계 분석”, 사상의학회지, 제3권 제1호, 1991. p.105.
- 15) 신귀희 : “가치관과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1980.
- 16) 이금실 : “의복의 신분 상징성과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78.
- 17) 이명희 : “예의 ·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 18) 이병신 : 「鍼道遠流重磨」, 서울 : 행림서원, 1974. p.347~348.
- 19) 이인자 :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수학사, 1989.
- 20)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서울 : 행림서원, 1963.
- 21) 임숙자 :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92.
- 22) 임춘봉 :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흥미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74.
- 23) 정명선 : “대학생의 의복가치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1.
- 24) 정명선 : “남녀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제8권, 제1호 : 1984.
- 25) 정삼호 : “제주도 여대생의 의복 행동과 가치관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 제2호 : 1978. pp.261~267.
- 26) 정숙정 : “가정환경 변인과 개인의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4.
- 27) 정혜영 : “성인여성의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85.
- 28) 한주석, 고병희, 송일병 : “東醫壽世保元과 濟衆新編의 양생장수론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제3권 제1호, 1991. p.148.
- 29) 한희석 : 「火曜漢方」, 창간호 : 1966. pp.24~28.
- 30) 허만희 : “四象人の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 31) 홍정용, 이을호 : 「四象醫學原論」, 서울 : 행림서원, 1989.
- 32) Goffman. E. :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 Double day, 1959, p 8.
- 33) A.M.Hoffman : “Clothing Behavioral Factors for a Specific Group of women Related to Aesthetic sensitivity and certain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Background Factors”, 1956. Ryan : 1966. p.104에서 재인용.
- 34) Horn.M.J. :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6.
- 35) Lapitsky : Clothing Value and Their Relation to Journal and to social Insecurity

and Doctor dre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1.

- 36) Richard, E.A. and Hawthorne, R.E. : "Values, Body Cathes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3 : 1971. pp. 190~194.
- 37) Ryan, M.S. :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 Rinehart and Winston, 1966. pp.102~103.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Clothing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of the disposition side and clothing value in grown-up women in order to apply Sasang constitution theory to the marketing strategy in clothing industry.

The study is based on a questionnaire about Sasang constitution and clothing value. The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519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2 to September 30, 1994 and analyzed by cluste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OVA and factor analysis using S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women were classified in to 3 clusters by cluster analysis : So-Yaung-In(少陽人)type (30.8%), Tae-Em-In(太陰人)type(40.7%), So-Em-In(少陰人)type(28.5%).
2. Correlations between So-Yaung-In type and each of clothing values showed all significant and specially, social value showed high correlation(0.57163).
3. In Tae-Em-In type, all correlations showed significant and social value(0.59072)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of all correlations.
4. In So-Em-In type, there was no correlation in political value and the order of clothing values showing high correlation was theoretical(0.57920), social(0.57161), economic(0.56956) and religious value(0.54026).
5. The aesthetic value among and constitution types showed the lowest correlation of all correlation.

By means of the about study results, we may know that all women belong to three types think social value of the more important value than any other in clothing value.

This is because grown-up women in korea prefer yet clothing of the harmonic and similar type to this of the individual type.